

노인성을 가슴에 품은 천문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탐라대학교 내에 위치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예로부터 오직 한라산에 올라서야 볼 수 있었다는 노인성(옉골자리 으뜸별 카노푸스 Canopus)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민천문대이다. 아름다운 서귀포시 앞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의 천문우주관련 과학관으로 지난 2006년 6월 15일에 개관하였다.



국내 최적의 노인성 관측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평생 한번 보기만 해도 무병장수 한다는 별인 노인성 '카노푸스'를 관측하기에 국내 최적의 장소이다. 카노푸스는 밤하늘에서 큰개자리 으뜸별인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중했을 때 고도가 매우 낮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별이기도 하다.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표시된 노인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이 별을 향해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노인성이 보이는 해에는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믿었다.

이처럼 보기 힘든 카노푸스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는 관측하기가 매우 쉽다. 옉골자리는 겨울철 별자리로 으뜸별인 카노푸스를 우리나라에서는 2월에서 3월 사이 저녁 시간에 남쪽 하늘 수평선상에서 몇 시간동안 관측할 수 있다. 보이는 기간이 비록 한두 달이지만 한번 보면 무병장수한다는 노인성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다른 시민천문대와 비교했을 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3월에는 '노인성 축제'를 열어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 앞 바다의 멋진 풍경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는 것은 바다의 시원함과 평안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다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이고, 멋진 풍경이 어우러지는 절경지는 유명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도 서귀포의 아름다운 남쪽 앞 바다를 감상하기에는 한라산을 오르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앞 바다 모습 또한 절경이 아닐 수 없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남쪽 시야가 탁 트여 서귀포 앞 바다가 한 눈에 보이고, 남서쪽 방향으로서는 저 멀리 가파도와 마라도 등의 섬들이 보인다. 밤에는 고기잡이배들이 수놓은 아름다운 불빛들도 장관이다. 오염되지 않은 하늘과, 광공해가 거의 없어 여름철에는 수평선으로부터 뻗어 올라오는 은하수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전파천문학과 광학천문학이 만나는 곳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사업은 3기의 전파망원경을 통해 전체에서 오는 전파를 합성하여 간섭효과를 갖게 하는 초장기선 전파간섭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망원경과 망원경이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초대형 안테나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3기의 전파망원경 중 1기가 바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옆 부지인 서귀포시 탐라대학교 내에 설치되고 있다. 2006년 말 완공 예정이다. KVN 사업과 연계해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 건립됨으로써 앞으로 이곳은 전파천문학과 광학천문학이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시민천문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천문학 관련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 필요성

개관한 지 5개월 여가 지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아직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개관 후 현재까지 이곳을 찾은 관람객 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제주도민을 위한 과학관이긴 하지만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듯 싶다. 각종 축제와 다양한 행사 개최, 서귀포시 및 중문관광단지와의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면 제주도에서 유명한 야간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매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념품이나 간단한 식음료를 살 수 있는 매점과 같은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망원경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해 보인다. 주망원경인 40cm 반사 망원경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시민천문대의 망원경이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작은 크기이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천문대로서 규모와 상징성을 고려한 크기의 주망원경이 요구된다. 이는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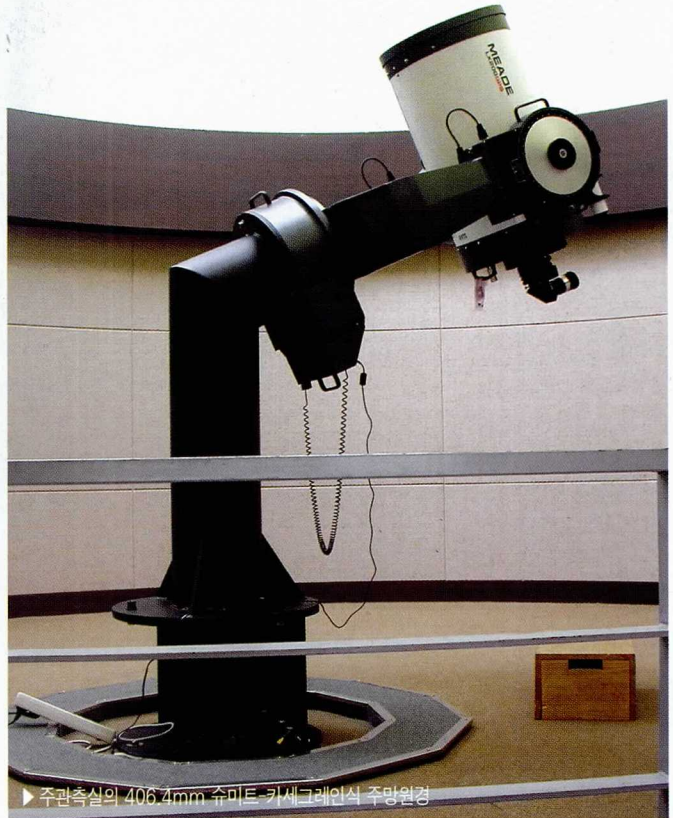




▶ 보조관측실



▶ 천체투영실. 디지털 플라네타리움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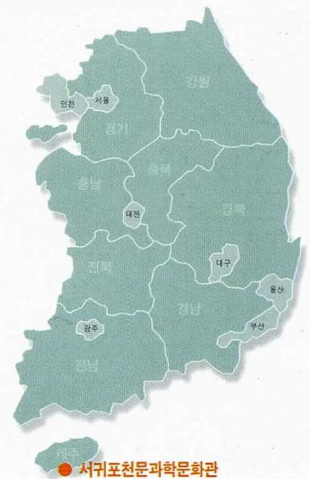
▶ 주관측실의 406.4mm 슈미트-카세그레인식 주망원경

■ 천문대 일반 현황

2006년 6월 15일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탐라대학교 내
 지상 2층
 연면적 : 719.9m²
 건물 : 498.78m²
 운영 : 서귀포시청

- 주요시설

- 주관측실 : 7m 원형 돔
 406.4mm 슈미트-카세그레인식 망원경
- 보조관측실 : 6.3m×13.4m 슬라이딩 돔
 각종 중·소형 천체 망원경 6종
- 천체투영실 : 8m 돔 스크린,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최대 40명 동시 관람 가능
- 전시실 : 우주체중계, 용오름 등의 체험시설과
 우주에 관한 전시물 전시
- 영상강의실 : 천문관련 영상물 상영
 CCD 카메라로 촬영한 천체 영상 관람 가능



- 관람시간

오후 2시~오후 10시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

- 입장료

청소년(6세~18세), 군인 : 1000원(30인 이상 단체 : 500원)
 성인 : 2000원(30인 이상 단체 : 1000원)
 # 제주도민 : 50% 할인, 면제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세 미만 등
 # 단체 방문 시는 사전 방문 협의의 필요

- 홈페이지 : <http://astronomy.seogwipo.go.kr> / 전화 : 064-739-9701~2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전경(20페이지)과 천문대에서 바라 본 서귀포 앞 바다의 모습

